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

정태혁박사 '부다차리타' 원전 번역



한문 번역본보다 부처님 말씀 생생히 전달

본을 비교해서 보아야만 한다.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는 제 1장 '왕자의 탄생'에서부터 제28장 '사리의 분배'까지를 원전에 가깝게 그대로 담아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 또 시문의 운율을 그대로 살리고, 어려운 산스크리트어를 설명해 놓아 원전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인도의 종교와 철학, 전설과 설화 등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정태혁 박사는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부처님 생애에 관한 경전이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문본에 의한 것이었다"며 "또 원전을 번역한 외국학자들의 노력들과 비교해도 서로 다르게 표현돼 있어 본래의

모습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용이 시문(詩文)으로 돼 있어 인형을 찾듯만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교수의 지적대로 원전과 한역(佛學漢譯)을 번역한 것은 상당히 다르다. 일례로 제4장 '환멸'관을 보면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에서는 '젊은 여인들은 유혹을 하려고 태자를 둘러싸고 몸을 맞대면서 통통하고 볼록한 젖가슴을 보이고...'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김달진씨 번역본 《부다차리타》에는 '그들은 곧 태자 앞에 나아가 제각기 갖가지의 애교부리네. 노래하고 춤추며 혹은 농담을 붙이고...'로 번역돼 있다. 또 23장 '인연을 결집함' 편에서는 '계를 지니지 않은 사람은 짐승과 같다'라는 표현이 '바른 계를 떠나면 그것은 짐승의 도(道)를 배우는 것으로서'라고 다소 복잡하게 해석돼 있는 등의 의미는 같지만 생생함과 의미전달의 명확성에서는 분명 큰 차이가 난다.

여시아문 운제학 출판부장은 "이 책이 완벽한 원전 번역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원전으로의 접근은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부다'며 '부처님 생애를 당시의 생생한 원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해독의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대부분 불자들이 알고 있는 부처님 생애는 한문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문 불전은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번역될 때 역자가 자의적으로 옮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생애를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 주지는 못한다. 담무참에 의해 한역된 《불소행찬》이 그중 가장 완벽한 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부처님의 참모습을 알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가 《부다차리타》의 산스크리트 원전과 티베트 역본을 저본으로 번역한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여시아문 판)는 원형에 가까운 《부다차리타》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더욱이 《부다차리타》 원전 번역은 한국에서는 초역이라는 성과 외에도 당시 인도사회의 문화와 관습을 보다 생생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다차리타》는 인도의 위대한 시인이요, 보살인 이쉬바고사(馬鳴)가 기록한 시문(詩文) 형태의 석가모니 부처님 전기로 찬불문학의 정수로 꼽힌다. 산스크리트 본은 제14장까지만 남아 있지만 티베트역과 한역에는 28장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부처님 생애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부다차리타》의 원전과 함께 산스크리트 원전이 없는 부분은 티베트 번역본과 한문

화두 짓는 법

토방 편집부 엮음

선지식들은 어떤 화두로 정진했나

선은 더이상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간에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선수행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제대로 화두를 짓지 않고서는 올바른 참선수행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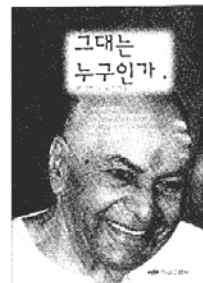
《화두 짓는 법》은 역대 눈 밝은 선지식들이 어떤 화두를 들고 정진했는가에 대한 글을 모은 것으로 처음 참선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안내서다. 좌선의 정의와 함께 성철 청담 만공 한암 송담스님 등 14명 스님의 화두 드는 법과 활구 참선법이 일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참선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한 생사심(生死心), 그래야만 진정한 의심이 일어난다고, '심(心)'자 한 자에 세상 모든 이치가 담겨 있다고도 하는 데... (토방, 7천원)



그대는 누구인가

슈리 폰자 지음

"호주머니를 비워라 이것이 자유다"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것만 그대는 잃을 수 있다. 그대는 얻었던 것만을 잃을 수 있다. 빈 주머니로 있을 때, 그대는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대의 호주머니를 비워라. 이것이 자유다. 그리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대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의 수행자 슈리 폰자는 《그대는 누구인가》에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자유와 깨달음, 평화와 환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몸과 마음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곧 자유를 찾는 것임을 이 책은 보여준다. 길본에 대한 대답의 형식을 띠고 있어 이해하기 쉽다. 김병채 교수(창원대 심리학)가 옮겼다. (하남출판사, 8천5백원)

연기사상 알면 과학이 보인다

김용운-육공 형제가 쓴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

현대과학은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복잡성의 과학'으로 일컬어진다. 이는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써 갑자기 예상 외의 모양으로 변하는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불교의 연기사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불교와 카오스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주장해 온 김용운 교수(한양대 명예교수)가 동생 김용국씨(수학문화연구소 부소장)와 함께 펴낸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우성

판)는 제3의 과학혁명이라 불리는 프랙탈과 카오스 이론이 불교사상과 어떻게 맞아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카오스는 '비선형(非線型)'의 예측 불가능한 불규칙적인 물리현상이며, 프랙탈은 '자기닮음(自己相似性)'의 성질을 지닌 도형으로 아무리 규모를 확대하거나 작게 하여도 여전히 같은 형태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은 자연, 생명, 물질, 경제 등 일상생활 속에 늘 존재하는데, 이는 곧 '여러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것이 곧 '연기'임을 이 책은 암시하고 있다.



카오스와 프랙탈은 절대적이 아니므로 기준이 일정치 않다. 따라서 '재는 도구'에 따라 길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재는 도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무아(無我)다. 그리고 무아이에 곧 '공'이라는 것이다. 한명우 기자

'불교와 문화' 여름호



대한불교 진흥원에서 간행하는 《불교와 문화》 98년 여름호(제6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특집으로 다룬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특별기획으로 다룬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등 두 편의 기획물.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에서는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등 4편의 글을 담았다. 이밖에도 불교계를 진단하는 '우리의 교단체제, 이대로 좋은가'와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등 다양한 내용이 함께 실려있다.

"불교는 카운슬링의 해법"

이광준씨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펴내

카운슬링의 개념은 20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동서양의 많은 선인들은 카운슬링에 있어서의 인간성 회복의 이념과 같은 사상을 말했다. 사람의 근기와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가르침을 주었던 부처님이 위대한 카운슬러였다는 것은 새삼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불교의 성립기에서부터 '본래 자기'의 회복이라는 명제가 부각됐듯이 불교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카운슬링의 대표적 종교이자 철학으로 꼽힌다.

이광준씨(동서심리학연구소장)가 펴낸 《카운슬링과 심리치

료》(학문사 판)는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정의를 비롯해 카운슬링의 목적과 분류,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카운슬링의 기법 등을 폭넓게 다뤘다. 이와 함께 카운슬링 자체가 '자기통찰'이라는 불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 불자들이 한 번쯤은 읽어볼만한 책이다.

카운슬링이란 복잡한 심리적 방위로 무장된 감정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달아 가는 것, 즉 진정한 참마음의 자기를 검토해 가는 것이다.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출발은 '인간의 존귀함'에서 비롯되며, 잃어버린 본래의

자기를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저자는 카운슬링과 전통사상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불교사상에 주목하고 있다. 우주 만유의 근원인 브라만(梵)과 자아의 궁극적 본체인 아트만(我)은 본래 일체라는 사실을 깨달아 운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한 우파니샤드철학은 '인간구원'의 방법론으로 정의되는 카운슬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 인간의 본성이 곧 부처라는 '심즉시불'과 '결성해탈'로 인격의 성숙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불교는 이미 카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운슬링의 영역을 확보해 왔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다.

또 육구불만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인간의 이상심리와 카운슬링의 이론적 배경도 함께 설명해 가거나 직장 사회 속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로 살아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 피네	법 정	동쪽나라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 홍 근	여시아문
5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립
6	성자의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담
7	가슴을 찢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심 우·지 현	민 족 사
8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 종 서	여시아문
9	남산이 복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10	선사들이 거려낸 세상	신 규 탁	장 경 각

구입문의: (02)737-0695

'아비담비바사론' '대승집보살학론'외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2권

동국대 역경원에서 《아비담비바사론 3》 《대승집보살학론 外》 등 2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아비담비바사론 3》은 한글대장경 《아비담비바사론》의 완결편으로 번역본 60권 중 제41권에서 60권까지의 내용을 담았다.

《아비담비바사론》은 부처님의 제자 가견연자(迦旃延子)가 짓고 5백명의 비구들이 해석한 것을 5세기 중엽 인도출신의 학승 부타발마가 도대 등과 함께 한역한 것이다.

《대승집보살학론》에는 《대승집보살학론》(보리지랑문) 《여실론반질난문》(방편심론) 《무상사진론》(회정론) 《관홍상론송》(취인가살론) 《대승법계무차별론》 등이 실려있다. 한명우 기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의미를 알면 믿음이 서고, 의미를 알면 실천이 쉽고

의미를 알면 성취가 빠릅니다.

많은 불자들이 아침·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맑디 맑은 신심을 바치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 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5,000원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절에 가면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초심자뿐만 아니라 오래 절을 다녔어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사찰 초입(初寺)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寺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7,000원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관음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신가요? 알고 계십니까?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 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를 바라고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86 / 3,500원